

칼럼

김 화 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현대차 리더십, 키워드는 스마트

현대중공업이 조선산업에서 글로벌 1위라는 사실은 이제 좀 무감각해졌다. 세계를 제패했던 대영제국 벨스 제독의 후예 영국해군도 현대중공업이 지은 유조선을 쓴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산업 글로벌 랭킹 테이블을 보면 자못 통쾌하기까지 하다. 현대차가 미국의 GM, 포드와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전쟁까지 벌였던 막강한 산업생산국 독일과 일본은 모르겠다. 그런데 코리야의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산업의 원조 거대 미국의 GM, 포드와 나란히 간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적이다. 더구나 현대차 초기에 포드가 현대를 업신여기고 제멋대로 기술을 부리던 이야기를 들으면 더 그렇다.

현대차는 그 연원이 194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대자동차주식회사가 탄생한 것은 1967년 12월 30일이다. 그해 5월 포드가 한국 진출을 결정하고 9월에 현대 측과 제휴를 확정했다. 현대차의 홈페이지에도 회사 연혁이 1967년에서 시작되고 있다.

고 아산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회고록에서 자신이 시작한 사업 중에서 자동차만큼 파란만장한 역정을 거친 것이 없다고 한다. 공장 부지 매입, 기술진 해외 연수, '코티나'의 실패, 정부의 자동차산업 정책 혼신, 울산 지역 대홍수로 인한 공장 침수, 포드의 현대차 접수 책략과 합작 결렬 등 전신만고를 겪었다.

회사 출범 후 거의 10년만인 1976년 1월에 최초의 고유 모델 '포니'가 탄생했다.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양정모 선수가 최초의 금메달을 땀던 해이고 미국에서는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 설립되었던 해다. 포니는 대성공이었다.

1986년에 그랜저,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에 거의 국민차인 쏘나타가 탄생했다. 1991년에 이미 전기차를 개발했고 1994년에 연 생산 100만대를 돌파한다. 1998년에 기아자동차를 인수하고 1999년에 에쿠스를 내놓았다. 현대차는 2000년 현대그룹에서 계열 분리되면서 정몽구 회장 체제가 시작되던 6년 만인 2006년에 글로벌 6위에 진입했다. 2008년에 제네시스가 태어났고 2018년

에는 세계 최초로 차세대 수소전기차를 공개했다.

오늘날의 현대모비스인 현대정공을 성공적으로 키워낸 정몽구 회장 체제의 현대차에서는 품질 경영이 특히 강조됐다. 그 결과 현대-기아는 2016년 토요타와 폭스바겐에 이은 글로벌 3위를 올랐다. 2019년에는 약 600만대를 판매해서 GM(630)에 이은 글로벌 5위다. 포드(440)가 그 뒤를 따른다.

아산은 자동차를 '달리는 국기'라고 불렀다. 자동차는 산업혁명 이후의 대표적인 공업생산품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독자 생산하는 나라의 모든 생산품은 같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자동차가 사람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수단을 넘어 사람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것을 보여주는 기계장치이기도 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자동차와 생산국 간의 이미지 관계도 긴밀하다. 현대차를 모바일 태극기라고 불려도 될 것 같다.

'정이 든 물건'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은 무생물인 물건에도 정서적으로 유착되고 칼 마르크스

의 말처럼 심지어 집착하고 숭배까지 한다. 어떤 물건이 대량으로 사회에 유포되면 그 물건은 소유주들을 통해 사회적 기능도 개시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동차가 그 대표적인 물건이다. 움직일 뿐 아니라 운전하는 동안 운전자와 일체가 되고 운명공동체다. 독일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독일과 심정적 유대를 맺게 되고 현대차를 타는 사람은 한국과 그렇게 된다. 현대차는 해외에서는 한국 경제성의 일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현대차는 큰 전환기를 맞고 있다. 3제로 이어지는 경영권 승계와 그에 따르는 지배구조의 변화 외에도 포스텍 송호근 석좌교수가 '가 보지 않은 길'(2017)에서 진단하듯이 단일 리더를 중심으로 한 추진력과 노사 간 화합이라는 장점이 사회의 다원화와 노조의 강성화로 희석되는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이 와중에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을 지향하는 변신도 가속 중이다.

자동차산업에서도 이제 '퀵텀 점프'가 필요한 시기다. 사업환경이 그냥 변하는 것이 아니라 차원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현대차는 기존 사업을 다음 시대에 적응시키면서 꾸준히 성장시키는 것을 넘어서 진취적이고 스마트한 리더십을 기초로 디지털 혁신을 성취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아산의 혁신적 리더십이 그 DNA를 그대로 내장한 채 새 시대에 맞는 모습으로 출현하기를 기대한다.

社 說

광주 도시숲 조성 기대 크다

도시에서의 숲의 기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역할을 한다.

도시의 공기정화는 물론이요 쾌적한 환경에도 크나큰 몫을 하고 있다. 이같은 도시숲은 그래서 제대로 된 도시의 경우 그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가 내년에 예산 25억원 을 투입해 녹지환경늘리기사업 등 5개 사업 17곳을 도시숲으로 조성한다는 기대가 크다.

도시숲 조성사업으로는 △도시열섬 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도심 내 자투리공간 녹지한 평 늘리기, 도심입체녹화, 열린 녹지 공간 조성을 위한 담장허물기, 보행자도로 녹지공간 조성, 주요 도로변 가로숲길 조성, 학교 숲 조성 등을 추진한다. 앞서 시는 지난 12일 '2020년 도시숲 조성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자치구에서 조사 후 제출한 사업 대상지 32곳 중 17곳을 선정했다.

사업 대상지는 △각화힐스테이트 주변 등 녹지환경늘리기사업 9곳 △우산주공 2차 아파트 등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사업 2곳 △서구 회재로(원광대 한방병원-제2순환도로) 녹도조성사업 1곳 △남구 오방로(방림사거리-무등차 아파트 교차로) 가로숲길 조성사업 1곳 △조선대학교 부속중학교 등 학교 내 미래숲(명상숲) 조성사업 4곳 등이다.

선정 위원회는 도시림 조성·관리 위원회 위원 중 전문가·시민단체 위원으로 구성됐고 대상지별 녹화사업 효과성·사업규모의 적정성·사후 관리 편의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

도시숲이 미세먼지와 폭염 등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미래세대에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가상번호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일코울 상담센터 222-5666
- ▲광주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여성의 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겨울철 도로 위 블랙아이스 감속방어 생활화 해야

'블랙아이스(Black Ice)'란 낮에 내린 눈이나 비가 아스팔트 도로의 틈새에 스며들었다가 밤이 되면 도로의 기름·먼지 등과 섞여 도로 위에 얇게 얼어붙는데 이때 만들어진 얼음은 워낙 얇고 투명해서 도로의 검은 아스팔트 색이 그대로 비춰 보이기 때문에 검은색 얼음(Black Ice)라고 불린다.

첫 번째, 블랙아이스 '상습 발

생 장소'에서는 평소보다 절반가량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 거리를 넉넉히 확보하며 운전해야 한다.

두 번째, 노면 얼음 위로 차량이 올라갔다고 생각되면 절대 브레이크를 잡지 말고 스티어링 휠을 똑바로 잡아 최대한 직진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결빙 도로 위에서는 브레이크로 급제동하는 것보다 엔진 브레

이크를 이용해 속도를 서서히 줄이는 게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세 번째, 겨울철에는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자. 윈터 타이어는 겨울철 낮은 온도에서도 딱딱해지지 않고 말랑말랑한 상태를 유지해 도로와의 접지력을 향상시킨다. 따라서 블랙아이스로 인해 발생하는 미끄러짐 현상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노면 결빙 상태에서는 다른 노면에 비해 제동 거리가 2배 이상 길어지므로 타이어 마모 상태를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차량 점검을 받아 차량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도로 운행 전 도로 상태와 기상상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차량화재를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한다면 겨울철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백종희 / 무안소방서 지휘팀장

등록번호 광주기 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 평 호 편집인·편집국장 강 서 원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체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한국언론진흥재단